



자원안보 위기 대응... 도,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전북특별자치도는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8일 도청 일원에서 승용차 5부제 참여와 에너지 절약 실천을 독려하는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정부가 원유 관련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요일제)를 의무 시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도 미래창달산업국장과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해 도청 인근 신기가지에서 점심 시간대에 맞춰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참여자들은 '승용차 5부제 동참과 에너지 절약 실천'을 주제로 현수막과 안내물을 활용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장수 개정마을 주변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행사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8일 장수군 개정마을 주변에서 직원과 마을주민 25명은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행사에서 단풍나무, 느티나무 40주를 식재하고 주변 환경정리를 실시했다.

무진장지사는 장수군 장수를 소재 개정저수지 제방 하류 주민 힐터주변에 느티나무 30주, 단풍나무 10주를 식재하고 인근 농경지 주변 폐영농자재 수거 등 환경정리를 실시하여 마을 경관조성에 기여했다.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행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산어촌 행복추진 활동의 일환으로 농어촌의 깨끗한 환경 보전과 농자재 사용 후 발생한 영농폐기물 등이 방지돼 경관을 저해하거나 불법 소각돼 대기오염 유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행사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 왕정동, 찾아가는 이불세탁 서비스 운영

남원시 왕정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영규)는 지난 7일, 거동이 불편해 대형 이불 세탁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이불세탁 서비스'를 운영했다.

이번 사업은 왕정동 7동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철을 맞아 겨울 동안 사용한 이불을 깨끗하게 세탁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찾아가는 이불세탁 서비스는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세탁 차량을 활용해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가 운영하며,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 등 세탁 취약계층의 위생환경 개선과 생활 불편 해소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신보 고창지점 이전... 정상 운영 재개

전북신보보증재단 고창지점이 보다 쾌적한 상담 환경과 향상된 접근성을 갖춘 새 보급자리로 이전에 업무를 재개했다.

전북신보보증재단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보다 편리한 금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창지점을 이전하고, 지난 6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 고창지점은 지난해 8월부터 고창군 중앙로 232에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청구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이전을 통해 보다 넓고 안정적인 업무 공간을 확보하면서 서비스 환경이 한층 개선됐다.

새 고창지점은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330에 위치한 선운 교육문화회관 1층에 자리 잡았다. /오상근 기자

'춘향제의 얼굴 되겠다'

남원 춘향제 자원봉사단 발대식
보행자 보호 등 관광객 안전 책임
청소년 자원봉사 서포터즈 별도 운영



운영에 눈길을 끈다. 지역 청소년들이 축제 현장 모니터링과 다양한 서포터즈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고, 축제 현장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청소년 자원봉사 서포터즈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남원시자원봉사센터(063-620-4873)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봉사자 여러분의 친절함 미소와 따뜻한 환대는 춘향제를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남원의 자부심이며, 방문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남원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질서 있는 활동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촌개발 협력 확대 논의

주한 잠비아 대사, 새마을운동중앙회 방문

주한 잠비아 대사가 한국의 대표적 지역개발 모델인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찾았다.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김광림)는 8일, 앤드류 브웨자니 반다 주한 잠비아 대사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중앙회를 방문해 지구촌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서 반다 대사는 최형재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새마을운동을 기반으로 한 농촌개발 사례를 공유하며 개발도상국 지역사회에 적용 가능한 협력 모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잠비아는 2023년부터 4개 시범마을을 중심으로 새마을운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주도의 자립 기반 구축과 함께 식수 보건 교육 등 생활 인프라 개선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에서는 공동체 중심의 참여와 자조 정신이 확산되면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에는 잠비아 새마을지도자와 공무원 28명이 한국을 방문해 지구촌 새마을운동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지방정부 및 농촌개발부 소속 공무원 10명이 포함돼, 정책적 차원의 협력 기반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세계 각국의 새마을을 조직을 연결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새마을운동글로벌리더를 창립했다. 현재 잠비아를 비롯해 몽골 탄자니아, 온두라스 등 11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며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보건소, C형간염 무료 항검사 본격 시행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가 4월부터 C형간염 조기 발견을 위한 'C형간염 무료 항검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60세 이상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보건진료소에서 진행되며 신속 항체검사키트를 이용해 현장에서 즉시 항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추가 정밀검사(확진검사)를 안내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HCV)에 감염되어 간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감염 시 80% 이상이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며, 이를 방지할 경우에는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백신이 없어 예방이 어렵고 초기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예방수칙으로는 △면도기, 칫솔, 손톱깎이 등 혈액이 묻을 수 있는 개인용품은 함께 사용하지 않기 △문신 피어싱, 침술 등 시술 시 반드시 소독된 기구



를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주사기 및 침습적 기구의 재사용 금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자가 시술 피하기이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감염병 관리팀(063-620-7332)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도민 생명을 지키는 힘, 체력에서 완성...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소방감 이오숙)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초체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력검정은 도내 소방공무원 3,000여명을 대상으로 8일부터 5월 20일까지 각 소방서 지정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교육 등으로 1차 검정에 참여하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는 5월 27일 2차 검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체력검정 종목은 악력, 배근력, 앞이웃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등 총 6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총점 7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체력 평가 결과는 개인 근무성적 평정 등 중요한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번 체력검정이 단순한 평가를 넘어, 개인별 체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현장 대응에 필요한 능력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아울러 본부 주관 운영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준비운동과 구급대 배치 등 현장 안전관리에



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력검정 결과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체력관리로, 급변하는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에 강한 소방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정읍새마을회, 함께 만드는 평화공존 나무심기

정읍새마을회(지회장 이경연)가 재회 식목일을 맞아 8일 영원면 영성리 일원에서 지역 환경 개선과 탄소 중립을 위한 나무 심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경연 지회장을 비롯해 박찬성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최금순 새마을부녀회장, 차진환 새마을문고 회장, 송화수 청년연대회장 등 새마을회원들과 교암초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등 70여 명이 한마음으로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영원면 영성리 고부천 일대에 산림청으로부터 후원받은 모과나무 60그루와 자작나무 1,500그루를 심으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올해는 지역 초등학생들이 직접 나무 심기에 동참해 자연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을 몸소 실천하는 뜻깊은 체험의 장이 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군산 해신동, 수산물종합센터 일대 환경정화

군산시 해신동은 8일, 행정복지센터와 상가번영회 지역 주민이 합심해 수산물종합센터 일대에서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본격적인 관광 시즌을 앞두고 수산물종합센터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청결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상인들이 직접 동네 환경을 가꾸며 '주인의식'을 고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정화 활동에는 해신동 주민자치위원, 해신상가 및 수산물센터 상인, 행정복지센터 및 수산물특화단지관리팀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인근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쓰레기 제대로 버리기'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상가 주변과 인근 도로, 주차장 등에 방치된 생활 쓰레기 및 배수구 오물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이를 통해 지역 환경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지속적인 환경정화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김만호 기자

정읍시, 지역 영유아에 '우리 밀' 무상 지원

정읍시가 성장기 영유아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가의 소득을 돕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40곳에 1,800만원 상당의 '우리 밀' 가공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시는 '우리 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보육 및 교육 시설에 다니는 원아 1,285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우리 밀 가공품을 무상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해 영유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고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품목은 아이들의 입맛에 맞고 급식 활용도가 높은 부침가루, 국수, 밀쌀 등으로 구성됐다. 제공된 식재료들은 각 교육 시설의 식단표에 맞춰 다양하고 맛있는 간식과 식사로 조리돼 아이들의 식탁에 오를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 백구면 지사협 등, 노후 방충망 교체 나서

김제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강인), 복지기동대(대장 유종환), 맞춤형복지팀이 8일 취약계층의 노후 방충망 교체 지원사업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백구면의 더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기동대가 힘을 합쳐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총 32세대 120여장의 방충망을 교체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기동대, 마을이장 등 30여명의 봉사자들은 어려운 세대에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낡고 구멍 난 방충망을 직접 수거 및 교체하는 작업까지 진행했다. 이날 봉사는 이른 아침부터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끝이 났지만 봉사자들의 얼굴에는 봉사 내내 웃음꽃이 피어있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알림

▲김강주 제10대 국립군산대학교 총장 취임식= 일사: 15 일(수) 오후 2시, 장소: 국립군산대 아카데미홀